

2010년 한국영화 트렌드 분석

2010 한국영화는 어디로 갈까?

2009년 장기적인 보릿고개를 깨끗하게 견뎌낸 한국영화는 2010년 또 어떤 새로운 기회의 시기를 맞을 것인가. 현재 한국영화 제작 상황판만 놓고 보면 속편 및 리메이크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한국산 3D 영화가 두루두루 관객을 찾을 전망이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주에 가까운 표현들이 난무했다. '올해 한국영화는 평균 제작편수도 채우기 어려울 것이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현장을 찾아보기 어려울지 모른다, 수많은 영화 스태프와 배우들이 반백수 신세를 면치 못하거나 TV로 대거 옮겨갈 것이다.' 이 모든 우려 섞인 예측에도 불구하고, 거칠고 바람 부는 황무지를 느릿느릿 통과해온 한국영화는 결과적으로 여전히 시장을 건강하게 지켜낸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한국영화 결산 보고서는 생각보다 그리 남루하지 않다. 투자 활성화 시기, 시장에 대한 적절한 분석 없이 터무니없이 늘어났던 평균 제작비를 안정적으로 줄여 나갔고, 조금 보수적이지만 실속 있는 기획으로 증박 이상의 영화들을 심심치 않게 쏟아냈다. <해운대>와 <국가대표>가 흥행 흥판을 날렸고, <과속스캔들> <7급 공무원> <거북이 달린다> 같은 의외의 흥행작이 나왔다. 이제 또 다시 새로운 기회의 시기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기적인 보릿고개를 깨끗하게 견뎌낸 한국영화는 또 어떤 영화들로 투자의 숨통을 틔우고, 잃어버린 관객의 환심을 탈환할 것인가.

천만 감독들의 의미심장한 지지개

총대를 메고 나선 사람은 역시나 오랫동안

한국영화 부침의 방패막이가 되어준 중견 '흥행' 감독들이다. 1천 만 이상의 흥행을 이룬 '천만 클럽' 감독이자 총무로의 믿음직한 만형인 강우석 감독은 만화를 원작으로 한 스릴러영화를 직접 연출하겠다고 나섰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 <이끼>가 바로 그것이다. <이끼>는 우연히 폐쇄적인 농촌 마을에 흘러들어온 한 낯선 남자가 가족 없이 홀로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비밀에 휘말려가는 이야기. 평소 "만화는 사람을 잘 속인다"며 만화 원작을 영화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강우석 감독이 <이끼>에 손을 댄데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 이전에 함께 일했던 랫즈필름의 김순호 대표가 <이끼> 투자를 의뢰하면서, 거절을 하더라도 일단은 읽고 해야겠다고 한 것이 제작의 발단이 됐다. 거절하기 위해 읽은 만화는 의외로 아주 흥미로웠고, 영화적이면서도 한국적이었다. <해피엔드> <모던 보이>의 정지우 감독이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이 영화는 현재 박해일, 정재영 등 개성과 배우들의 연기로 스크린에 힘있게 옮겨지고 있다.

강우석 감독과 마찬가지로 <왕의 남자>로 '천만 클럽' 멤버가 된 이준익 감독 역시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를 신작으로 선택했다. 박홍용 작가의 동명 만화를 원작으로 한 <구

르를 버서난 달처럼>은 16세기 왜란이 잦던 시기, 서로에게 칼을 겨눌 수밖에 없었던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정통 사극. 황정민, 차승원, 백성현이라는 개성과 배우들로 안정적인 캐스팅 진용을 꾸린 이 영화는 12월 촬영을 마치고 최근 후반작업에 들어갔다. 영화계는 오랜만에 지지개를 켜 두 명의 '흥행 쌍두마차'가 2010년 고개 속인 한국영화의 기운을 짊어줄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다.

<해운대>로 2009년 흥행 흥판을 날린 윤제균 감독도 등장 피우지 않고 서둘러 신작 소식을 발표했다. 이번엔 전세계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3D 영화다. <해운대>로 어려운 물 CG를 성공적으로 재현해낸 윤제균 감독은 신작 <제7광구>에서 시추선 안에 살고 있는 괴생물체를 3D로 재현할 계획이다. 게다가 이번엔 진짜 순수 한국 CG 기술, 한국 자본으로 완제품을 만들어낸 뒤 할리우드 배급망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밀그림을 그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윤제균 감독이 이처럼 큰 글로벌 아이템을 구상하게 된 이유는 <해운대> 촬영차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했을 때, 할리우드 CG 업체들이 너나없이 3D 기술 확보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해운대>로 영화의 기술적 진화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증만해진 윤제균

감독은 그때 이후 3D의 원리부터 익히기 시작해 이제는 어느 정도 3D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 배경은 국적이 불분명한 바다 밑 심연의 '제7광구'.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양의 석유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알려진 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윤제균 감독은 과연 한국의 기술만으로 이런 할리우드 재난영화의 스토리를 실감나게 재현할 수 있을까. 할리우드 3D 영화 제작비의 1/10에 불과한 5, 60억 원의 제작비로 한국 첫 실사 3D 영화를 완성할 수 있을까. 도전정신이 투철한 윤제균 감독은 이 모든 우려에 코웃음을 날리며 자신감 있게 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다.

새로운 모험이라면 윤제균 감독 못지않은 광경택 감독도 2010년에는 3D 실사영화 <아름다운 우리>(가제)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남북 해상 충돌로 꼽히는 연평도 해전을 다루는 이 영화는 100% 3D 입체영상으로 제작되는 작품. 한국 영화의 기술적 진화에 관심이 많은 두 흥행 감독이 도전하는 두 편의 3D 영화가 모두 해양 블록버스터라는 점이 흥미롭다.

작가주의 감독들, 가슴을 펴고 뛰다

해외에서 주목 받는 대한민국 '대표' 감독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현재 101번째 영화를 준비 중인 임권택 감독은 한국의 소리, 한국의 그림에 이어 이번엔 '종이'의 아름다움을 영상으로 재현해낸다. 전주국제영화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작되는 <달빛 길어 올리기>는 '한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영화. 3년째 아내 병수발을 하느라 생기를 잃어 버린 7급 공무원이 1천 년이 돼도 말하지 않는 한지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는 이 영화는, 이전 임권택 감독의 영화와 비슷한 듯하면서도 여러모로 다른 작품이다. 우선 임권택 감독의 오랜 영화 동지였던 정일성 촬영감독 대신 황기석 촬영감독이 영화의 카메라를 잡는다. 1981년 <만다라> 이후 오랫동안 정일성 감독의 눈을 통해서만 세상을 바라봤던 임권택 감독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된 이유는 <달빛 길어 올리기>가 100%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되는 작품이기

때문. 시대의 흐름을 온몸으로 감지하기 위해 나선 이 노장 감독은, 그래서 이번 영화가 "101번째 영화가 아니라 임권택 영화로부터 치열하게 도망쳐서 만드는, 어찌 보면 데뷔작 같은 영화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진중한 삶의 철학을 담은 영화로 해외에서 인지도를 높인 이창동 감독 역시 <밀양> 이후 오랜만에 신작 <시>를 만들고 있다. 영화 <시>는 생활보조금으로 딸이 맡긴 아이를 돌보며 어렵게 살고 있는 한 60대 할머니가 문화강좌에서 시를 배우고 생애 처음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60년대 문희, 남정임과 더불어 여배우 트로이카를 이룬 배우 윤정희가 1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해 화제를 모은 이 영화는 현재 촬영을 모두 마치고 내년 5월 개봉을 목표로 후반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야기의 시원은 이제 한국 고전영화

2010년 영화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그동안 일본소설이나 만화 등에서 영화아이템을 얻어온 영화 제작자들이 이제는 이야기의 시원을 한국 고전영화에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한국 고전영화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클래식 반열에 오른 고전영화를 현재적으로 각색하는 작업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영화가 김기영 감독의 1960년 영화를 리메이크하는 <하녀>다. 임상수 감독이 연출을 맡고 전도연이 주연하는 이 영화는 '하녀'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시대의 분위기를 반영해 하녀 대신 '유모'가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내는 이야기를 그려나간다. <하녀>는 현재 주조연급 배우 캐스팅을 진행 중이며 2010년 초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 이만희 감독의 <만추>(1966)도 21세기 버전으로 다시 만들어진다. 신성일이 연기한 주인공 위폐범 캐릭터는 꽃미남 청춘스타 현빈이 재현해낸다. <가족의 탄생>의 김태용 감독이 연출을 맡는 이 영화는 현재 미국 시애틀에서 시나리오 작업이 진행 중으로 김태용 감독이 미국까지 건너 가 시나리오 작업에 몰두하는 이유는 이 영화가 한국과 미국 합작으로 제작되기 때문이다. 덕분에 이 영화는 원작과 달리 미국을 무대로, 100%



천만 클럽 감독의 귀환, 3D 영화 제작 열풍, 속편이나 리메이크 열풍 외에도 한국영화는 지금 좁은 한국 시장을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2010년 한국영화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부가편권 시장을 찾아낼 수 있을까.

미국 로케이션으로 촬영된다. 한국의 대표적인 공포영화 <월하의 공동묘지>(1967)도 2010년 드라마와 영화로 나란히 리메이크된다. <월하의 공동묘지>는 한국의 고전영화로 만들어지는 '원 소스 멀티 유즈' 상품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는 작품. 이 영화의 제작을 맡은 베르디 픽처스는 <월하의 공동묘지>를 우선 만화로 기획, 모바일과 웹에서 연재한 뒤 게임 콘텐츠와 드라마, 영화로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속편 영화는 여전히 기획 중

한국영화는 아니지만 한국영화만큼이나 우리들의 기억 속에 깊이 남아 있는 홍콩영화 <영웅본색>도 송해성 감독의 손에서 새롭게 리메이크된다. <무적자>로 제목을 바꾼 이 영화는 남자들의 의리, 피할 수 없는 숙명 등의 코드는 그대로 두되,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사연은 모두 바꿨다. 일단 세 명의 주인공이 모두 탈북자로 설정됐다. 송해성 감독은 주연배우 주진모, 송승헌, 김강우, 조한선과 함께 남자 냄새 물씬한 이 프로젝트를 힘차게 지휘해나가고 있다.

리메이크만큼이나 활기를 띠는 것은 속편 프로젝트. 1월 개봉되는 <주유소 습격사건 2>를 시작으로 2010년에는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줄줄이 이어질 전망이다. 2008년 틈새시장 공략에 성공한 학원 공포영화 <고사-피의 중간고사>의 속편이 2010년 새롭게 제작될 예정이며, <엽기적인 그녀> <각설탕> <괴물> <마음...> 등의 속편도 제작된다.

이처럼 한국영화계에 유난히 리메이크 및 속편 기획이 많아지는 이유에 대해 영화관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는다. "요즘에는 촬영 전 해외 합작을 성사시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작품을 제작하기 전 해외 투자 및 합작을 이뤄내려면 기본적으로 원소스가 있는 영화가 유리하다. 그러니 리메이크나 속편 기획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기획 중인 속편 및 리메이크작 대부분은 한국 자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나라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대표적인 영화가 <만추>와 <괴물2>다. 이들 영화는 각각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 천만 클럽 감독의 귀환, 3D 영화 제작, 속편이나 리메이크 열풍 외에도 한국영화는 지금 좁은 한국 시장을 탈출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 2010년 한국영화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부가편권 시장을 찾아낼 수 있을까. 세계를 향한 창은 어느 때보다 활짝 열려 있다.

황희연 기자

